

공포심 그리고 원자력

주 승 환

기술사(방사선 관리) · 원자력공학 박사

「공포감은 인간의 감정들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특성을 지닌다. 인간의 영혼에 공포심이 미칠 효과는, 한 방울의 독약이 샘물 전체에 미칠 효과들처럼 아주 다양하다. 그런 독약처럼, 두려움은 다양한 가면을 쓰고 우리의 의식 속에 기회를 엿보면서 꿈틀거리고 있다. 우리는 살아 숨쉬는 우리 세계가 아주 깨어지기 쉽게 구성된 것임을 알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삶들은 우리의 깊은 잠재 의식 속에서 그 세계와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의 가냘픈 실끈에 연결된 것임도 똑똑히 인식한다. 각자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형태와 수량으로 나타내긴 막연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의 근원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두려움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다(친닝추).」(14) *

필자는 가끔씩 스스로 다음과 같은 물음을 해본다.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곳에 세워진 시설물들을 대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은 분명할 것 같다.

주민들은 그들의 주변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그리고 관계된 산업 시설들이 위험하다는 선입관(先入觀)을 가질 것이며, 그들의 잠재된 의식 속에 그들에 대한 공포심을 담고

살아갈 것이다.

비단 원자력발전소 주변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어디를 가나 자기 마음 속에 잠재된 공포를 느낄 감정을 따로 떼어놓고 갈 순 없다.

일상 생활에서 운송 수단인 자동차·배·비행기를 탈 때도, 제 발로 길을 걸을 때도, 그리고 등산의 산행길에 한 모금의 샘물을 마실 때도, 심지어는 시장에서 식품들을 살 때도, 항상 자신을 경계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심할 경우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간다.

개인에 따라 그런 공포의 정도 차이는 있게 마련일 것이다.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 사람에게는 ‘공포증’이란 병명이 따라붙게 된다.

하지만 공포심은 또 달리 이롭게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가 자멸을 피해 가기 위한 자구책으로 생길 공포심은 우리의 주의력을 환기시켜 주기도 하며,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줄 하나의 길잡이가 되기도 한다.

사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배양하는 노력은 위험에 대한 천부적인 감지 기능을 훈련시킨다. 그런 기능

* 참고 문헌 일련 번호는 전호(前號)에 이어 매깁니다.

의 일부는 유전으로 타고나기도 하겠지만, 후천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완성될 수 있다.

통찰력을 배양할 그런 노력들 중에는 자연의 법칙을 이해해야 할 지식들도 포함된다. 예컨대, 불길 속에 가까이 다가서지 말아야 할 자세를 취함도, 달리는 자동차를 피함도, 낭떠러지나 고층 아파트에 올라서면 현기증을 느낌도, 어느 누구도 자기의 판단이나 천성에 따른 자연의 법칙에 순응할 심리적인 현상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자연 현상의 하나인 지진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반과 함께 요동칠 때, 아파트에 살아본 이들은 누구나 한 두 번쯤은 지진의 전율적인 공포 분위기를 경험했을 것이다. 잠시 동안 땅 전체의 흔들림에 따라 쓰러질듯이 흔들리는 아파트가 우리를 지켜줄지 의심하고, 그래서 공포를 느끼면서도 곧바로 지진이 멈출 것이란 경험에서 온 믿음과 확신 때문에 참고 견딘다. 마찬가지로 사나운 폭풍 속에서도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거센 폭풍일지라도 우리를 스치며 지나갈 것으로 알고 견뎌낸다.

지진 그리고 폭풍은 지구의 무게 균형과 대기의 압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자연의 소용돌이 현상들이므로 인간의 힘으로서는 막을 길이 없다. 그것들은 인간이 만든 법칙에 따르지 않고, 오로지 자연의 법칙에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자연의 법칙들에 순응하고 그들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간다.

과학 기술과 우리 생활

잘 알고 있듯이, 자연의 법칙을 순리적으로 풀어내고, 밝혀낸 지식을 통해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학은 우리 생활을 운택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순응토록 판단의 지혜를 주고 그리고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도구를 만들어 우리를 유도시킨다.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위험에 대한 공포의 대상들을 대체로 소상히 밝혀낼 수 있다. 뒤따라 기술은 과학이 밝힌 자연 법칙의 논리에 따라 그에 대응할 공포심과 관련된 문제들을 차곡차곡 해결해 왔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우리는 '과학 기술'이란 한 낱말로 묶어 표현한다.

과학 기술은 우리가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atom)의 에너지(원자력)를 발견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우리 선현들은 애초에 원자를 한 물질의 기본 단위로서 그들의 머리 속에 형상화시킨 것이지, 존재하는 실체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간은 19세기 초에 우주의 태생

때 자연에서 원자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뒤이어 인간이 발명해낸 기술을 써서 원자 속에 잠재된 그의 무한한 에너지도 발견하게 된다. 과학자들은 원자의 에너지를 이용할 기술을 개발하기에 앞서 그의 가공할 파괴력을 알고 나서부터 그 에너지에 대한 전율을 느끼면서 조심스럽게 원자력에 접근하였다.

원자의 에너지는 단순히 순수한 자연 현상의 요소들 중의 하나다. 하지만 이것을 발견한 인간이 그것을 이용할 기술을 발명하고 나서부터 원자력은 그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두 얼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원자력의 이용 기술을 인류가 과학 기술로 만들어낸 위대한 예술 작품이며,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에너지 근원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 쪽은 공포의 대상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원자의 처음 모습들

기원 전 5세기 경, 그리스의 철학자 레우키푸스(Leucippus)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트라키아(발칸 반도 동부에 있었던 고대 국가의 하나) 사람인 철학자 데모크리토스(Democritus)가 '원자'를 처음으로 말했던 것으로 전한다.

그것의 개념은 그리스의 의사였던 갈렌(Galen)이 데모크리토스가 쓴, 전해져 오지 않는 72권의 책 중 한 권에 기록된 '색을 띠고, 쓰고, 그리고 달지만, 실제로 원자들의 사이는 빈 공간'이란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15)

앞서 얘기처럼, 20세기 초까지 원자 에너지의 개념은 물리학에서 합리적으로 정립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인간의 상상으로 그려놓았던 원자는 아주 오래된 관념 속의 한 존재로서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로 결합하여 충만하고 녹기도 하고 그리고 썩기도 하는 만물의 근원 요소란 개념이었다.

그러나 17세기부터 일부의 물리학자들은 오랫동안 관념으로만 전해오던 원자의 모델을 물질의 기본 단위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원자에 관한 이전의 생각들을 좀 더 구체화시킨 다른 모습의 원자를 가정하게 된다.

그들은 가정된 어떤 원자의 모습에 바탕을 두고 그들의 논리를 폈다. 하지만 실제로 원자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의문은 계속 토론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영국인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쓴 「프린키피아」는 1678년에 라틴어



원자력을 발견해 낸 물리학자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Prometheus)처럼, 죄 값(16)을 받을 까닭이 없다. 원자력은 인간이 발견한 제 2의 불이며, 인류가 발견한 수많은 과학 기술들 중에서도 원자력만큼 우리의 생활에 필수적인 과학 기술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주창한다.

로 출간되었고, 뉴턴 역학의 체계를 기술하고 있다. 그는 그 저서에서 원자를 소형 당구공과 같은 한 모델로 상상하여 그 기준을 바탕으로 뉴턴 역학의 체계가 확립된 것이다.

1704년 뉴턴은 “태초에 신은 물질을 크기와 모양을 갖춘 딱딱하고, 질량을 가지고, 뚫고 들어갈 수 없고, 움직일 수 있는 입자들로 만들어 여러 가지 성질을 갖게 하고 공간에서 부피를 차지하며 당신이 만든 대로 남아 있게 하였다.”라고 썼다. (15)

뉴턴 이후, 170년이 지나 원자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자연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1873년 스코틀랜드의 물리학자 맥스웰(James Clerk Maxwell)은 공간에서 입자들이 단

순하게 충돌하는 기계적인 뉴턴의 우주관에 전기와 자기의 에너지가 작용하는 자연 현상을 발견하고, 「전기와 자기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 공간에서 원자들이 운동하는 것은 기계적인 힘뿐만 아니라 전자기적인 힘도 같이 작용하는 물질 세계를 알게 된 것이다.

예컨대, 우리가 탁구공을 라켓으로 쳤다면, 뉴턴의 역학은 공이 라켓에 맞아 기계적인 힘으로 튀겨난다고 설명된다. 하지만 맥스웰의 이론은 공이 라켓 표면에 부딪친 것은 공과 라켓 사이의 공간에 전자기적인 힘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공과 라켓 원자들은 각자의 전자기적 힘이 미칠 영역(전자기장)들을 가지고 있고, 기계적인 힘으로

는 그런 전자기장을 뚫고 들어가는 데 힘의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공을 이룬 원자들과 라켓의 원자들이 서로 기계적으로는 맞닿게 될 수 없으며, 원자들의 주위를 감싼 일정한 전자기적인 힘들이 두 물체들을 밀친 것으로 설명된다.

물질들은 서로들끼리 전자기적인 에너지를 서로 주고 받는다. 현대 물리학자들은 이 에너지를 방사선이라 표현한다.

우리는 원자의 모습이 사실로 확인되기 전까지, 즉 핵물리학 이전까지를 '고전물리학'으로 구분한다. 물질 세계에서 그들끼리 서로 주고 받는 에너지는 '방사선'이란 수단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의 순환

앞서 설명처럼, 필자는 원자력을 우주의 태생부터 우주를 구성하는 하나의 기본 요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리고 원자력은 인간이 발견했든, 그렇지 못했든, 엄연히 자연에 존재하는 하나의 에너지이다.

인간은 자연에 숨어있던 원자력을 단순히 발견한 것에 불과하다. 자연에 없었던 원자력을 인간이 창조해 낸 것은 아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수단들은 과학 기술의 도구였다.

원자력을 발견해 낸 물리학자들

은 하느님으로부터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Prometheus)처럼, 죄값(16)을 받을 까닭이 없다. 원자력은 인간이 발견한 제2의 불이며, 인류가 발견한 수많은 과학 기술들 중에서도 원자력만큼 우리의 생활에 필수적인 과학 기술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임을 주창한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일지라도 정기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다. 제일 먼저 X-선으로 폐의 기능 검사를 받게 된다. 그런 X-선은 110년 전에 독일의 물리학자 뢰트겐이 발견한 최초의 원자력 에너지인 방사선이다.

그 뿐만 아니다. 우리의 문화 생활을 지탱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전기는 우리의 경우, 약 40%가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고 있다.

모든 에너지의 순환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예컨대, 깨끗한 에너지들은 대체 에너지들로서 그들 중에 대표적인 것은 태양빛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 이용하는 태양 발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의 태양 에너지를 얻으려 해도 태양빛을 전기로 바꿔줄 반도체 소자의 조합들과 주변 장치들은 넓은 면적의 땅에 깔아야 한다. 이런 시설들이 깔린 지역에서는 그런 반도체들이 태양 에너지를 모두 빼앗아 가기 때문에 어떤 식물도 거기

에서 자랄 수 없다. 그런 땅들은 모두가 불모지가 된다. 우리가 태양빛으로부터 에너지를 많이 뽑아 쓸수록, 불모지의 면적은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땅은 미국처럼 사막인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모두가 동식물이 자랄 수 있는 땅이다. 태양빛 에너지를 얻으려면 반드시 어떤 지역은 불모지로 희생돼야 한다. 그래야 생산될 전력은 한정되게 마련이다.

우리는 문명 생활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전기를 얻으려고 원자력을 이용하고 있다. 방사성 쓰레기들의 대부분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생겨난다. 원자력을 공포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이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원자력으로부터 얻어지는 전력을 기피할 수도 없을 것임도 이해할 것이다.

인류 최초의 방사성 쓰레기

1942년 12월 2일 오후 3시 49분(미국 시간) 미국 시카고 대학의 한 축구장 모퉁이에서 엔리코 페르미(Fermi) 박사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원자의 불을 다룰 새로운 한 '화로(火爐)'를 만들어 실험하고 있었다.

그가 만든 인류 최초의 '원자화로(원자로)'는 약 4분 30초 동안 우라늄 연료를 태웠다. 그가 태운 우라늄의 연료 다발이 바로 인류 최초



로 생긴 방사성 쓰레기였다.

그때만 해도 그런 쓰레기들의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해지리란 예상을 누구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필자의 추측이긴 하지만, 그저 운동장 한 구석에 그것을 놓아두면 아무 탈 없는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지금처럼 왜 우리 뜰에 그런 쓰레기를 버리느냐고 탓하는 이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60여년이 지난 지금은 누구나 방사성 쓰레기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방사성 물질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의 방사선은 우리의 공포심을 자극시킬 요인들 중의 하나임을 누구도 잘 알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의식이 선택적으로 변했다고 해야 옳다.

병원에서나 전기를 쓸 때나 나에게 방사선이 필요할 때는 그것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의 사업장에서 흔히 일어날 사소한 일도 우리에게서는 엄청난 일처럼 국민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진다.

언론 매체들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것을 뉴스의 초점으로 다룬다. 사실 보도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다. 하지만 환경 문제가 있는 현장에서나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체로 그것들을 보도하는 내용들이 균형을 잃고 한쪽에 쏠리는 경우가 있었다.

<동아일보>의 어떤 기자는 본지

에 기고한 한 논문(17)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보도 자료를 ‘빠다귀’ 논리로 전개시켰다. 관련 자료를 얻으려고 행정 당국(과기부),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 그리고 사업자(한수원) 들에 알아보면, 그들은 사건의 ‘빠다귀’ 자료만 내놓는다고 한다. 환경 단체나 핵을 반대하는 쪽은 어떨까? 그들로부터 얻는 자료들은 한결같이 내용들이 보다 구체적이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실토한다.

우리는 이런 보도 내용들에 길들여져서 원자력에 대한 공포심을 더 키워 온 것은 아닐까?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역기능 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된 것은 언론의 책임도 없진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언론은 태운 원전 연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언론은 우리의 생각과 공포 심리를 편향시킬 수는 있다.

공포심(恐怖心)

우리는 공포의 대상을 자세히 알지 못할 경우, 그런 공포심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 예컨대, 한동안 세계를 공포의 태풍 속으로 몰고 온 사스(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18)란 새로운 질병은 세계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그 까닭

은 그의 정체를 아직도 우리가 밝혀 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은 원자력도 처음 발견했던 애초의 물리학자들이 그것의 가공할 파괴력을 알면서부터 보통 사람들보다 앞서 원자력의 공포를 느꼈다. 그들의 공포는 원자력이 가공할 파괴와 살상의 수단인 무기로 쓰일 경우는 그를 막을 수단이 없고, 그것을 다룰 기술을 가지는 국가는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생각하며 그리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간다. 동식물들도 인간 사회처럼 그들만의 독특한 사회를 이루면서 생명을 이어갈 것이다. 인간 사회는 동식물의 사회와는 달리 스스로 법을 만들고 법에 따라 질서가 유지된다.

물질의 세계에서도 개별 물질들의 질서를 유지해 가는 자연의 법칙은 따로 있다. 기독교에서는 창조주인 하느님이 세상 만물들을 만드시고, 그들의 역할을 하나하나 지정해 둔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물질들은 인간 사회처럼 스스로 다스릴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인간의 두뇌, 그가 만든 과학 장치들의 이용, 그리고 한정된 과학 법칙의 논리로써 심오하고도 무한한 자연의 법칙을 한 겹 두 겹 풀어가야 한다.

이 일은 과학자가 해야 할 몫이다. 과학자들은 자연의 법칙을 파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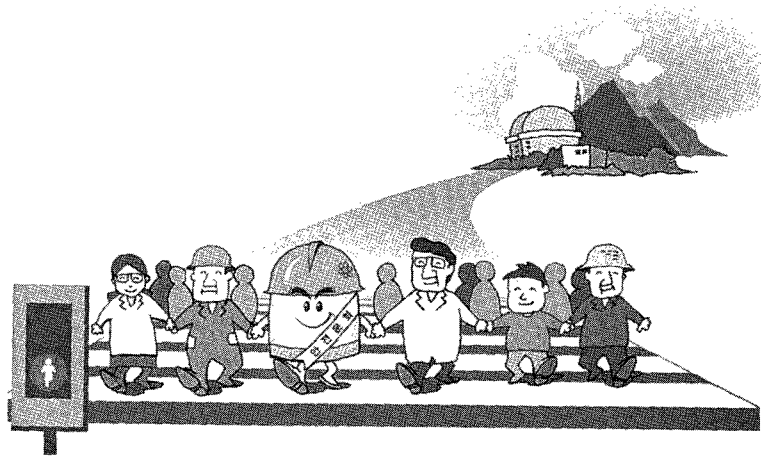
철 도구들 그리고 방법들을 스스로 개발해 간다. 그런 활동의 하나로써 물질의 세계를 다룰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란 낱말의 뜻을 새롭게 정한 것이다.

원자는 신의 언어인 범어에서 온 말은 아니고, 범어 이후의 희랍 철학자들이 만든 인간의 언어로부터 생겨난 낱말이므로 원자는 인간이 정한 것이다.

원자는 사랑도 슬픔도 미움도 그리고 두려움뿐만 아니라 더더욱 공포란 개념을 담고 있지 않다. 그저 물질의 기본 단위의 개념밖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원자를 공포의 대명사로 이해하는 것일까? 필자는 그 까닭이 원자를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 생각했다. 그런 생각은 필자가 쓴 책들과 어느 글에서나 밑바탕을 이룬다.

보통 사람들은 원자를 그렇게 이해할 까닭이 있다. 원자의 세계를 들여다 보려면, 특수한 장치인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야 그의 참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방사선도 보이지 않는 광선이다. 예전부터 보이지 않는 대상일수록 우리의 공포심은 수천 배로 부풀어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자의 본바탕과 그의 속성을 잘 알고 있다. 보통 사람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원자란 같은 대상을 두고 서로의 이해가 다르고, 그래서 그 차이로 느낄 공포의 정도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원자력발전소를 운전하는 그들과 '함께 있다'는 생각을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정서와 삶을 값지게 떠받칠 지렛대가 될 것이다.

것이다.

전문가는 원자력을 안전하다고 말한다. 보통 사람들은 안전보다는 위험 쪽으로 기울어진다. 안전 그리고 위험은 사물이 갖춘, 한 동전의 양쪽과도 같은 속성을 갖는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것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보게 된다.

그 한 예가 마약의 양면성 기능이다. 습관성인 마약은 그 효용이 너무도 다양해서 붙여진 이름인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마약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도 우리를 파멸로 이끌 양면성의 표본이다.

‘함께 있는’ 원자력

공포심을 이겨내려면, 먼저 자신 스스로가 공포와 마주치려는 용기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이 일단 공포심의 초점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공포란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닐 것이다.

다음은 중국계 미국 여성으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친닝추(朱津寧)의 경험담이다. [14] 그녀의 얘기는 우리의 공포심을 극복시키는 데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언제나 깊은 물이 무서웠다. 수영장 깊은 쪽에서 수영을 하고 있을 때면 당황해 했고 마음속에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언젠가 카리브 해로 순양(巡洋)에 나선 적이 있었다. 배가 미국령인 버진 아일랜드에 정박해 있는 동안 그녀는 심해 잠수 강습을 받게 되었다.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그곳의 색다른 광경을 구경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내려가 보기로 결심했다.

반시간 정도의 짧은 잠수 교육을 받고 나서 강사 1명이 포함된 일행 11명으로 한 조를 짜고, 각자 산소통을 등에 짊어지고 바다 밑으로 잠

수했다. 물 속에 있는 동안 자신이 바다 밑에 있다는 생각을 마음 속으로 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꼈다. 그럴 때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바다와 일체야. 바다 속의 모든 생물체들과 하나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어디에 있든 나는 그곳의 소속이다. 이 대양을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 나도 물고기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원자력발전소를 가끔씩 견학한다. 거기에 세워진 정문과 원자로 조정실의 건물 안으로 들어설 때 누구나 예외 없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안전 절차에 따르게 된다. 이것은 원자력발전소의 규칙이다. 자동차를 몰 때 안전띠를 매는 것은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인 것처럼.

안전 절차가 끝나, 원자로의 부속 건물을 지나면 방문자를 위하여 만든 관람석이 있다. 거기에는 원자로를 운전하는 조종실 안에서 작업하는 발전소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유리창을 통해 볼 수 있다. 독자는 이 때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

필자는 지금까지 딱 두 번 이런 장소에 들어가 봤다. 한 번은 15여 년 전에 고리 발전소의 친구 안내를 받고 무심코 그곳의 원자로 조정실을 지나친 기억이 있어 그 때의 느낌들은 기억이 없다. 두 번째인 2001년 산업 시찰의 목적으로 울진

발전소를 견학했을 때는 방사성 쓰레기의 처리 문제가 불거진 때라 그 쪽에 관심을 두고 살펴본 것을 글로 쓴 적이 있다. [11]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시설물들 안으로 자주 들어가 발전소 직원들이 하는 일을 구경할 기회가 많지 않을 것이다. 처음 방문하는 사람일 수록 미리 괜한 공포를 마음 속에 품고 들어서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마조마해 올 것이다.

그러나 두 번 세 번을 견학하고 나면, 유리창 너머로 원자로 조정실에서 일하는 운전자들과 한 마음으로 돌아설 것이다. 만일을 염려했던 자신이 오히려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2년 전에 조직 폭력배(조폭)를 다룬 영화, 「친구」를 기억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 작품이 우리 조폭 영화의 신드롬을 일으켰던 사실도 기억할 것이다. 그 영화의 포스터는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아무 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는 주제를 달고 있었다.

만일 원자력발전소를 운전하는 그들과 ‘함께 있다’는 생각을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정서와 삶을 값지게 떠받칠 지렛대가 될 것이다.

「공포심의 내용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할 정도로 강렬할지 모른다. 하

지만 우리가 그 내용 너머로 공포 자체를 바라볼 때 무엇을 발견하는가? 만일 우리가 공포심 자체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순수한 에너지, 그 에너지가 그 본질을 노출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다면 초조함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는 대신, 공포심의 에너지가 우리를 환희나 고도의 집중이나 사랑의 상태로 이끌도록 할 수 있다.]

-고대 힌두 성전-

〈참고 문헌〉

14. 친닝추(朱津寧)/김영진 옮김, 「후안 흑심」, 고려원 간행(1996). 원저 「THICK FACE, BLACK HEART: THE PATH TO THRIVING, WINNING & SUCCEEDING」by Chin-Ning Chu, Warner Books, Inc., N.Y.(1995)

15. 문신행 옮김, 「원자 폭탄 만들기」, 사이언스 북스 간행(2003), 원저 「The Making of the Atomic Bomb」by Richards Rodes, Simon & Schuster N.Y(1966)

16. 신동호, “언론에서 바라본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원자력산업 제 23(5), 87-93(2003), 한국원자력산업회의

17. 주승환, “「불의 신」과 꿈의 에너지”, 기술사, 29(4), 한국기술사회의 (1996)

18. 유권화, “「사스 1호」는 고양이 요리사”, 중앙일보, 2003. 6. 9., 7쪽